



상품성이 높은 올바른 닭튀김강습회 개최

- 광주, 부산, 서울에서 720여명 참석 -

본회는 86년도 상반기 소비홍보 사업에 이어 하반기 사업으로 여고(배성여상)에 양계산물 조리실습을 지원한데 이어 7월 18일(금), 21일(월), 23일(수)에 전남 광주, 부산, 서울에서 닭고기의 위생 가공 처리방법과 올바른 닭튀김 요리방법을 보급하기 위해 상품성이 높은 올바른 닭튀김 강습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강습회에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교수 루이스·웨슬리(Lewis Wesley) 박사가 초빙되어 미국 브로일러 산업과 닭고기 즉석식품을 위한 위생적인 닭고기처리·절단방법등 원료육의 준비에 대해 미국의 예를 소개하면서 강의를 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련회장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있는 닭튀김요리 8선을 선보였으며 서울

강습회에서는 즉석식품산업의 경영과 전망에 대해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회장의 강의가 추가되었다.

강습회 대상자로는 닭튀김 판매점포 관계자, 단체급식 실무자(영양사, 조리사), 지역별 도계장 관계자 등이 참가하였다.

루이스·웨슬리박사는 강의중에 도계위생처리에 관해 역점을 두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계 위생처리 공정의 기계화는 지난 20년 동안 닭고기 생산이 대폭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간 동안 효율적인 생산설비가 개발됨으로써 도계처리에 소요되는 작업인원이 50%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남는 인력은 보다 바람직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영양과 경제에 대한 인식이 종전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위생에 관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므로 이에 부응 하려면 생산자들의 노력과 함께 판매업자들이 위생적인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도계처리후 소비되거나 가공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세균수는 도계처리 후의 시간과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위생적인 도계처리가 이루어지면 상점에서 약 15일간 보존이 가능하므로 위생적인

도계치리를 할경우 판매상으로도 이익을 주게 된다.

왕준련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닭튀김요리로 치킨버거, 라조기, 감풍기, 닭살치즈튀김, 닭살야채튀김, 닭날개튀김, 닭튀김, 닭인삼즙튀김을 조리하였다.

서울강습회에서는 위의 두강사외에 박영인회장(USFGC)이 즉석식품의 전망에 관해 강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정상적 의미의 Fast Food (즉석식품)는 1979년 또는 그 이후인 80년대 들어서이다”라고 하면서 닭고기 시장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앞으로도 닭고기가 즉석식품으로써 성장할 요인은 매우 크며 닭고기 즉석식품의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유를 든다면 △시설의 개선 △유리한 점포위치 △영업시간의 연장 △깨끗하고 화려한 색상의 장식 △다양한 메뉴 △신제품 △건강식품으로서의 닭고기 홍보 △학생 및 청년층의 고객확보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닭고기의 판매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번 강습회에는 광주 410명, 부산 145명, 서울 163명이 모여 연인원 720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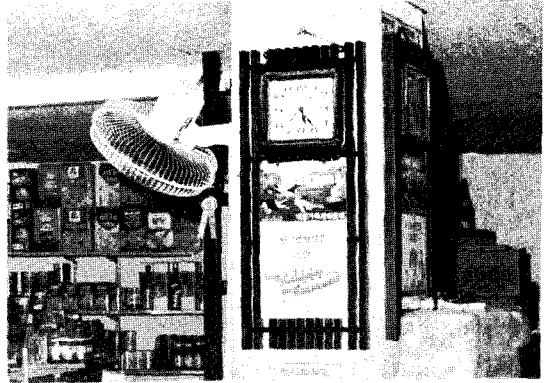
소비홍보 포스터 설치

- 서울시내 유명 슈퍼마켓에 -

금년도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양계 산물 소비홍보 포스터(일명 가협 포스터)를 서울시내 비교적 유통량이 많은 슈퍼마켓중 150곳에 닭고기·달걀포스터 1개씩, 1개점포에 2개씩 모두 300개를 설치 하였다.

7월31일 설치가 끝난 가협포스터(보사부산하가축계획 협회 공동으로 하는 공익광고 일종) 설치 슈퍼마켓으로는 삼양식품체인 슈퍼마켓중 50개점포, 회성산업(주)의 럭키체인 슈퍼마켓중 50개점포, 한남체인 슈퍼마켓중 40개 점포, 농협중앙회체인 슈퍼마켓 9개 점포, 뉴코아슈퍼마켓을 포함한 150곳이다.

이번에 설치된 포스터는 8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 부착된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채란분과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가문제와 대소비자 홍보사업, 해외 선진지 시찰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

난가전망에서는 장기적인 양계산업불황으로 인해 초생추 입추 의욕저하와 새로운 질병(IB)과 돈육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공식품에 계육 사용증가로 노계의 도태가 원활하고 상반기 초생추 입추가 안정적이었던 관계로 계란생산이 어느 정도 조절 됨으로써 7월 이후 부터는 난가가 회복되어 후반기에는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계란가격 고시제에 대한 문제에서는 고시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 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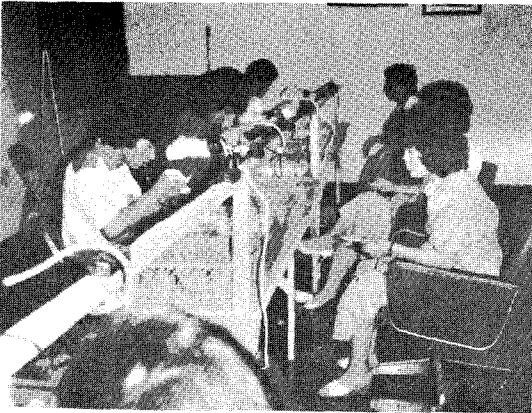


△ 7월 채란 분과위원회

기제도와 함께 개선점으로 보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회의에 앞서 협회상반기 홍보활동 상황과 하반기 홍보사업계획, 해외 선진지 시찰보고가 있었다.

'86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실시



△ 감별사 자격시험

우수한 감별사 양성을 위한 '86 감별사 자격시험을 지난 7월 26일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총응시자 27명(고등 4명 갑종 23명)이 지원하여 갑종 12명이 합격하고 고등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 합격자 명단은 이순욱, 윤석만, 김종연, 최찬순, 김경호, 정채용, 김미순, 안정숙, 김천래, 김치욱, 신옥식, 김성숙, 이상 12명이다.

7월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 7월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박사)가 지난 7월 16일 오후 4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간양계 7월호에 대한 검토와 함께 8월호 편집계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최근 수입개방된 양계용 배합사료 개방화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양계농가에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와 90년대 양계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편집계획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7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7월 육계분과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역별 정보교환에서 육계가격은 kg당 하이 900원 세미 950~980원이며 지방이 약간 높은편이었다.

초생추가격은 여전히 270~300원선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말복을 대비해 입추량도 많은편이나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말복까지는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 소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순까지는 강세를 유지하다가 그이후 부터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즈음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소개소가 등장하여 여러가지 장단점을 안고 있는데 대부분 업자들이 생산자가 아니라 많은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생산자들이 단합을 해서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소개소가 될수 있도록, 분회나 계우회가 중심이 되어 활성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했다. 8월 육계분과위원회는 8월 27일(수)에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키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업계의 권위있는 분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니 육계업자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여고에 양계산물 조리실습 지원

- 배성여상에서 실시 -

본회는 금년도 중점사업인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예비주부인 여고생들에게 닭고기조리실습을 지원하였다.

시범적으로 동대문구 창신동에 소재한 배성여상 3학년 420여명을 대상으로 7월11일(금), 14일(월), 16일(수)의 3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본회가 준비한 양계산물 영양에 대한 이론강의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의 영양사를 초빙해 닭튀김, 닭날개튀김조림, 닭살샌드위치, 스크램블드애그를 강습했고, 학생들은 그중 한가지인 닭살샌드위치를 직접 실습한 후 시식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본문 159페이지)



△ 미래의 주부들에게 닭고기 조리실습을 지원 양계산물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여고 조리실습.

TV · VTR · 장식장 기증

지난 7월 9일 서부배합사료(대표 정규현)에서 홍보용 TV · VTR을 기증했다.

계우회, 단체모임 뿐만 아니라 대 소비자 홍보를 위하여 시청각 교육(홍보)이 필요할 경우 본회는 비치하고 있는 홍보 비데오를 이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용 장식장 2대(4자×2m)를 본회 회장이 기증 했다.

장식장에는 수집된 국내의 각종 홍보자료를 전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매스컴 활용한 소비홍보 활용

- MBC-TV 9시뉴스 특별방영 -

본회는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MBC-TV측과 협의하여, 7월11일 밤 9시 뉴스에 계란에 대한 영양적 특성을 특별방영 하였다.

본 프로에는 정선부박사(축산시험장 가금과장, 본지편집위원장)가 특별 출연했다.

또한 신문·잡지 등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호 여성중앙에 “여름철 보신 닭고기요리”, 7월 8일 동아일보에 “노인을 위한 여름철 영양식 삼계탕”, 7월 14일 중앙일보에 “삼계탕으로 무더위를

쫓는다”, 7월 24일 일간스포츠 신문에 “무더위서 건강을 지키자-삼계탕”, 7월 28일 축산시보에 “고단 백질 달걀을 먹읍시다”, 8월 10일 주간여성에 “질 좋은 단백질 21% 들어있고 맛도 좋은 닭고기” 등이 실렸다.



△ MBC-TV에 출연해 계란에 대해 설명하는 정박사

제3차 양계산물 소비홍보 협의위원회 개최

본회는 7월 9일(수) 오후 5시 본회 회의실에서 소비홍보 협의·자문위원을 모시고 86년 상반기 홍보실적 보고와 하반기 홍보계획을 검토하는 소비홍보 협의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협의위원회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비홍보 사업에 양계인 스스로 솔선 수범해서 참가하여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겠다.
2. 일반소비자와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 “양계산물 표어 현상 공모전”을 갖자.
3.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학교조리 실습직원을 통해 홍보하자.
4. 홍보사업 기금모집에 근본적이고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발전할 수 있다.
5. 지역별 계우회 회원 모임, 소비자 단체 모임 등에 소비홍보 비데오 테이프를 보여주자 등의 많은 의견이 나왔으며, 하반기 홍보 사업 계획(안)은

닭튀김 세미나 및 요리 강습회, 양계산물 학교 조리 실습지원, 닭고기 요리 솜씨대회, 닭고기·계란 소비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계획(안)대로 실행토록 결의 했다.

이날 홍보협의위원회는 협의위원회 오봉국회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하여 천호그룹 이제조회장 한일그룹 차두홍회장, 전국대 오세정교수, 한국사료협회 권 배전무, 한국동물약품협회 이희구전무 등 16명이 참석 하였다.

달걀 소비촉진을 위한 가두캠페인

- 전남도지부 -



본회 전남도지부에서는 전남지역에 값싸고 영양이 풍부한 달걀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바캉스시즌을 맞이하여 달걀소비를 획기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 본회가 지원한 달걀 우수성 홍

보 전단을 전남지부 임원단 및 관련업체 여직원 30명을 동원하여 7월12일, 13일 2일간에 걸쳐 광주 시가지에서 인파가 제일 많이 운집하는 광주 충장으로 입구, 화니백화점 앞, 광주대인시장 주변에서 배포하는 소비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전남여성회관, YWCA여성단체에도 배포했으며 각 달걀상회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달걀 20개이상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달걀 우수성 팸프렛을 배포하였다.

계란 판매용 비닐봉투 제작

- 경북도지부 -

본회 경북도지부에서는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계란 판매용 비닐봉투 20만매를 제작하여 경북 지역 상인들에게 배포하여 계란이 판매되는 슈퍼마켓·일반소매점 등을 통하여 사용케 하고 있다.

본 비닐봉투는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계속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양계산물 소비홍보 촉진에 필요한 표어모집에
양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대한양계협회 홍보협의회